

오피니언

월/요/광/장

이상갑



한국무역협회가 발행한 '208개국 경제·무역·사회지표 본 대한민국 2006'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세계 223개국 중 39위에 머물러 있다.

이러는 경제규모와 달리 1인당 국민소득은 208개국 중 47위, 삶의 질은 67개국 중 39위에 머물러 있다.

'6월 항쟁' 20주년을 맞으며

기 집을 갖지 못하고 있다. 사교육비 부담 역시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또 2000년에 비해 2005년에 초혼 연령이 남녀 모두 1년 이상 늦어졌고, 합계출산율은 1.47명에서 1.08명으로 급격히 떨어졌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절대빈곤층으로 전락했다. 경제의 외형은 커지고 있으나, 경제성장이 소득분배로 제대로 이어지지 못한 결과 삶의 질이 그에 비례하여 높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기 고

매년 5월이면 전남의 도서 벽지에선 눈물겨운 이별이 일어난다. 선착장을 떠나는 배를 향해 허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할머니와 할아버지, "꼭 한번 놀러 오라"고 외치는 아주머니·아저씨 등 '짧은 청년'을 떠나 보내는 애절한 장면이 여기저기서 펼쳐진다.

또 다른 재벌 2세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주식을 취득하고 순환출자제도의 맹점을 이용하여 기업경영권을 승계한 사실이 드러났다. 불공정하게 시장지배력을 키워온 재벌 성장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시 설

지난 2일 장성군 북이면 호남고속도로 호남터널 하행선에서 발생한 연쇄 추돌사고로 차량 3대에 불이 나 1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했다. 이날 사고로 터널 내부에 심한 연기와 유독 가스가 발생, 운전자와 승객 등 200여명이 긴급 대피하는 등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다.

터널 안전기준 강화로 대형참사 막아야

지난 2일 장성군 북이면 호남고속도로 호남터널 하행선에서 발생한 연쇄 추돌사고로 차량 3대에 불이 나 1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했다. 이날 사고로 터널 내부에 심한 연기와 유독 가스가 발생, 운전자와 승객 등 200여명이 긴급 대피하는 등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다.

호남터널 사고는 부실한 터널 내 시설안전 기준과 안전 불감증이 부른 참재된 인재(人災)라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호남터널 하행선은 길이 760m의 편도 2차선 도로로 환풍시설과 대피시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사고에서도 이전의 터널 화재에서 드러났던 문제점이 그대로 재연돼 당국의 안전 불감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운전자들의 안전의식도 문제다. 터널에서는 반드시 감속운행을 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하는 안전수칙만 지켜도 화재는 막을 수 있었다.

호남터널 사고를 계기로 터널의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등 사고 예방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운전자들도 합순간의 방심과 실수로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안전운전에 유념해야 할 것이다.

자치단체, 불법 주·정차 단속 의지 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이 겉돌고 있어 유감스럽다. 광주시에 일선 구청은 지난 1일부터 견인업무를 민간에 위탁,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하기로 했지만 차질을 빚고 있다.

열리는 전국제전에 대비, 교통기초질서 확립에 총력을 기울여겠다고 발표했다. 장비와 인력 등 모든 행정력을 동원, 불법 주·정차와 신호위반 등 교통기초질서 위반을 집중 단속하겠다는 것이다.

광주는 불법 주·정차 '천국'이나 다름 없다. 간선 및 지선도로는 물론 주택가 골목길까지 불법 주·정차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편도 1차선 도로 양쪽에 주·정차를 일삼아 교통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광주시와 일선 구청은 하루빨리 견인 업무를 정상화해야 한다. 불법 주·정차를 위해 DJ와 납세안을 거쳐 부상을 당한 차량이 없는 확 풀린 도로를 시민들에게 되돌려 줘야 할 것이다.

법조 칼럼

김도형



학교 안팎에서 발생한 학생들의 안전 사고 관련, 상담을 종종 받게 된다. 상담 의뢰자는 피해 학생의 부모·학교장·교사 등 매우 다양하고 이들이 알고자 하는 내용도 각기 다르다.

신적인 교통을 당하는 것 같았다. 교장과 담임 교사 등 학교 측도 엄청난 고통을 당했을 것이다. 이러한 고통의 가장 큰 원인은 학생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학교 안전사고, 보상보단 예방이 중요

다칠 수 있고, 학교시설물 이용중 부상 입을 수 있는 등 안전사고의 유형도 다양하다. 부모뿐 아니라 모두가 안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학부모의 비협조 등으로 인해 단체보험 가입이 성사되지 않았다. 학부모들 중에는 '학교에서 안전공제에 가입되어 있는데 무슨 걱정이냐?'고 묻는다. 안전공제회의 보상절차 및 보상금액 등이 충분해서 안전사고를 당한 학생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음식점 자외선 소독기 사용방법 제대로 알고 사용해야

식당이나 단체급식소, 고속도로 휴게소, 백화점 등에서 음식을 먹고 난 뒤 물병을 마실 때 자외선 소독기에 있는 컵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자외선 소독기란 자외선이 닿는 부분만 소독이 되도록 되어 있다.

의 효과를 보려면 컵을 바로 세워 자외선이 소독될 부분에 닿도록 보관해야 한다. 제대로 소독된 컵을 제공한다면 소비자들이 일부러 1회용 컵을 사용하는 경우가 줄어들어 자원절약에도 도움 될 뿐 아니라 업주의 비용부담도 덜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기 고

이해구



이렇게 떠나는 이들은 의무부무를 마치고 새 일자리를 찾아 대도시로 향하는 공중보건의사들이다. 전남의 경우 연평균 250여 명의 공중보건의가 떠나간다.

곳이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되면서 병역을 마친 일반 대학졸업자들도 입학이 가능해 의학전문대학원 첫 졸업자를 배출하는 2013년을 전후로 공중보건의의 숫자는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공보의들 돌아오는 전남 만들려면

며 섬마을 주민들의 건강을 보살피는 공중보건의들도 많다. 이들은 할아버지·할머니들의 노환을 돌보다가도, 자식자랑 하는 노인들의 말에 귀 기울이며 막걸리 한 사발이라도 나눠 마시는 귀한 존재이기도 하다.

들을 자발적으로 하고 있다. 동네 사람들과 공무원들이 하나로 뭉쳐 동호회를 만들고 등산·족구 등 취미를 함께하는 보건소가 있는가 하면, 생일날 꽃과 케이크를 준비해 축하를 불러주는 곳도 있다.

등산객들 산에 오르내리며 농작물 함부로 손대서야

천정 시골에 갔더니 요즘 산삼을 캐겠다고 산을 헤집고 다니는 사람들이 산에서 내려오면서 농작물에 손을 대 농사짓는 시골 부모님들이 화를 냈다.

지난주에는 비닐하우스 밭에있던 삼치를 손댔고 작년 가을에는 고구마 환고랑을 완전 파워잡아놔서 밭패지가 그런줄 알았다가 뒤늦게 마을 사람들에게 인근 산에 왔던 등산객들 여럿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無等鼓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요즘 코너에 몰렸다. 카터 전 대통령은 지난달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 중 누가 더 나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세계 국가들에 미친 부정적인 충격에 관한 부시 행정부가 사상 최악'이라고 답했다.

18국립묘지를 참배하면서 평상시와 전혀 다른 말을 해 어리둥절하게 했다. 그는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DJ(김대중 전 대통령)와 함께 5·18 묘지를 참배할 생각이 있다", "여수엑스포 유치에 미친 부정적인 충격에 관한 부시 행정부가 사상 최악"이라고 말했다.

독설

정치의욕은 유망하지만 한국에서는 대통령이라고 해서 별반 다르지 않다. 그중에서도 압권은 김영삼(YS) 전 대통령의 독설 시리즈. 10여년 전 YS와 전두환 전 대통령간에 벌어졌던 '주먹감자지' '골목감자지' 논란은 새발의 피다. 강도는 갈수록 세지고 있다.

예상은 적중했다. YS는 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독설을 이어갔다. 그는 지난달 28일 홍준표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김대중이 지금 완전히 발악을 하고 있다"면서 "정권 교체가 되면 자기가 죽는 줄 안다. 하도 부정한 게 많아서 말이야..."라고 막말을 했다.

광주일보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喆,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福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浩樂.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